

전남도, 고물가 대응·민생안정 위해 568억 원 긴급 투입

소상공인·농어업인·취약층 등 어려움 해소할 지원대책 발표

전라남도는 19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원자재, 원유 등 글로벌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취약계층 등에게 568억 원을 투입하는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5%의 상승률을 보이던 중, 지난 6월 24년 만에 최고치인 7.1%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남도가 마련한 물가민생안정 긴급 대책은 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 농어업인, 취약계층 등 도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이다. 도민이 혜택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재정 안정망 구축에 173억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창업자 특례보증을 하고, 채무 상환유예 및 만기 기한을 1년씩 연장한다. 최근 출시한 전남 공공배달앱으로 소상공인의 영업수익도 개선하고, 전남 지역화폐

발행량을 1조 원에서 1조 2천3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선박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 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힘든 조선업에는 이주정착금, 고용유지 지원금,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등 12억 원을 신규 지원하고, 생산기술 인력 양성 및 기능인력 훈련수당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2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운수업계에는 유가 급등에 따른 유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재정지원금 80억 원을 지급한다. 수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수출보험료와 담보한계 특례보증 혜택을 모든 수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해외 온·오프라인 상설 판매장을 활용해 안정적 수출 판로를 지원한다.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및 농어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98억을 지원한다. 농어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선 267억 원을 추가 확보해 면세유 인상액 50% 지원을 10월까지 연장한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특별할인전, 소비진작 할인,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대도시권 직거

래장터 활성화 지원 등에 25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남도장터(jnmall.kr)를 통해 쌀 홍보 기획전을 하고, 경로당 어르신이 공공비축미 대신 안전한 친환경 쌀을 공급받도록 친환경 쌀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한다.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김·전복·우럭·낙지 등 품목별 맞춤형 판촉 행사를 확대하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비 지원을 늘린다.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을 위해 98억 원을 지원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선 바우처 택시를 전 시군에서 시행하고 100원 택시 지원과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확대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진 도민에게 17억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구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 사업(5억 원)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관광 숙박·여행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 융자 지원하고 장애



전라남도는 19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원자재, 원유 등 글로벌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취약계층 등에게 568억 원을 투입하는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 제공

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비용경감을 위해 여행활동을 지원한다. 창작활동 지원금도 보조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재유행 등 경

제적 악재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의식을 갖고 선제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도민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직후에도 원자재와 유가 급등에 따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6개 분야에 668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서용운 기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핵심산업 분야 8개 기업 투자유치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국내 8개 기업과 투자금액 565억원, 고용창출 150여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8개 협약체결 기업 대표,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이 참석했다.

협약 기업은 ▲동국성신(주) ▲(주)에코라트 ▲한국축산데이터(주) ▲(유)성경글라스 ▲(주)넷은 ▲(주)참좋은넷 ▲(주)나눔세상 ▲엘

투테크 등 8개 기업으로 각각 전기전자 핵심부품, 친환경·지능형 조명, 축산분야 스마트케어, 데코글라스, 인공지능보안 토탈플랫폼, 주차공간 제어 스마트 파킹시스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연구개발, 무선통신 모듈 개발 등 광주경제자유구역의 주력산업 분야 기업이다.

동국성신(주)은 인천에 소재한 전자전자부품 제조기업으로 가전분야의 도어가스켓, 히터류 등에서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핵심부품 기업

이다. 이번에 광주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자동차, 2차전지 분야 신규사업 진출과 함께 신성장 산업분야 해외 수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에코라트는 인천에 소재한 도로조명 센서 및 제어장치 전문기업으로 인공지능과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지능형 조명 분야에서 아시아 선두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광주 에너지밸리에 연구소와 공장을 신설하면서 차세대 도로조명 시스

템의 인공지능 기술 및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유럽 수출제품의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에 소재한 한국축산데이터(주)는 가축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운영하는 축산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AI융복합지구 투자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농가에 디지털 가축헬스케어 매니저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과 함께 인공지능 의료산업을 위한 빅데이터 연구소 및 인공지능 축사 시범단지 설립을 추진한다.

(유)성경글라스는 전북 정읍에 소재한 글라스 전문 제조기업으로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전면부에 장착되는 데코글라스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의 1차 협력기업으로 가전제품의 트렌드 변화와 수요 증가에 대비한 투자를 통해 광주의 우수인력 채용과 함께 유통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넷은, (주)참좋은넷, (주)나눔세상, 엠테크(주)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 및 소프트웨어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로 광주경제자유구역의 인공지능 생

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8개 핵심산업분야 기업과 535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에 8개 기업 56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통해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인공지능을 포함한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에너지 등 핵심전략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기업이 광주를 찾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25th Muan Lotus Festival

제 25회
무안 연꽃축제

연꽃의 향기! 백련의 사랑!
사랑이 이루어지는 회산백련지

2022. 07.21(목) ▶ 07.24(일)
무안군 회산백련지 일원

2022 한국관광공사
안심관광지 선정

주최 무안군

주관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